

아버지를 본 받읍시다.

빌립보서 2:17-21

본문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선포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은 것입니다. 임시로 묵는 여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이 진정으로 행복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려야 하고, 염려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찢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런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을 준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셨으므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추도하는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에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혹 우리중에 믿음이 없거나 약한 가족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서 모든 가족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명예롭게 살아야 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삶과 업적으로 남기는 것과 후손들의 성공을 통해 남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존경받는 신앙과 사랑의 가정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훌륭한 삶을 살고 사랑하며 살 때 아버지처럼 귀하고 명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장 행복한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아버지가 가신 천국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아름다운 삶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신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 명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